

강이야기
1
River & Culture



이 용수 | (주) 도화종합기술공사 수자원개발부
(yyswater@dohwa.co.kr)

탐진강 발원지 답사기

일시 : 2008년 3월 7일

1. 탐진강 개요

탐진강(耽津江)은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기성산 451.5고지 북서계곡에서 발원하여 남류하여 장흥군 유치면을 지나고 장흥댐에서 잠시 쉬었다가 부산면, 군동면을 지난 후 강진읍에서 강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남 3대 하천의 하나이다.

발원지가 있는 기성산은 북쪽의 궁성산과 함께 땅끝기맥의 마루금을 따라가는 중요한 통로로 여러 등산가의 사랑을 받아온 지역이다.

탐진강은 동경 126° 39' 27"~126° 59' 32", 북위 34° 35' 55"~34° 52' 33" 사이에 위치하며, 전라남도 장흥군, 강진군 및 영암군 1도 3군이 일부 또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유역면적은 505.52km², 유역둘레는 134.26km이고, 유역평균폭은 9.38km, 유역평균표고는 EL. 165.16m, 유역평균경사는 29.94%이다.

탐진강은 국가하천 탐진강 1개소가 있으며, 지방1급하천은 없다. 지방2급하천은 탐진강, 운월천, 봉덕천, 용문천, 유치천, 관동천, 반월천, 한치천, 상촌천, 읍천천, 영산천, 신덕천, 황곡천, 신월천, 월암천, 수덕천, 부산천, 산동천, 월곡천, 호계천, 금자천, 내안천, 부동천, 평화천, 금강천, 월산천, 성전천, 삼당천, 학동천, 병영천, 성동천, 성불천, 장산천, 군동천, 파산천, 금사천이 있다.

탐진강유역의 유역내 총면적 중 산림면적은 343.94km²로서 유역면적의 68.04%로 유역의 대부분이 산림지대이며, 농경지면적은 125.02km²로서 유역면적의 24.73%를 차지한다. 시가지면적은 12.04km²로서 2.38%를 차지하며, 기타 초지, 수역 등이 유역면적의 4.85%인 24.52km²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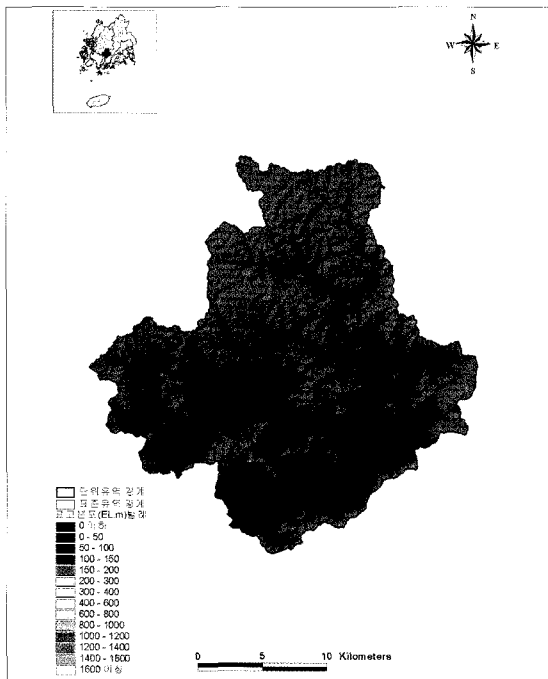
본 탐진강은 북쪽으로는 지서천유역 및 영산강 중류유역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섬진강 서남해유역, 서쪽으로는 영암천유역 및 영암방조제유역, 동쪽으로는 주암댐유역과 접해 있다.



(그림 1) 탐진강 유역도

탐진강의 유래에 대하여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탐라의 사자가 신라에 조공할 때 배가 여기에 머물렀으므로 이 포(九十浦)를 탐진(耽津)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탐진강이라 부르게 된 연유를 알 수 있게 한다.¹⁾

문헌상에 있는 탐진강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中宗 25년, 1530년) 제37권 장흥도호부 편에 “탐진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작천(鵠川) 영암군(靈巖郡) 월출산(月出山)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강진현의 북내상(北內廂) 서남쪽을 지나 부의 남쪽 6리에 이르러 수령천과 합쳐 강진의 구십포(九十浦)로 들어간다. 예양강(內陽江) 부의 동쪽 성문 밖에 있다. 수령천(遂寧川) 예양강(內陽江)이라고도 하는데, 가지산(迦智山)에서 나와 부의 북쪽 2리를 지나 돌아 동쪽으로 흐르고, 또한 서남쪽으로 흘러 성암(省巖)에 이르러 강진현의 구십포와 합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²⁾



〈그림 2〉 탐진강 표고분포도

또한 1797~1826년에 성해응(成海應)에 의해 만들어진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고려대학교 소장) 권 44의 지리류(地理類) 동수경(東水經)편에는 예양강(內陽江)이라 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內陽江 內陽江源出羅州之雙溪山 東南流 環

長興府而西 爲內陽江 至舍人巖 西流至康津縣南 爲九十浦』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용은 “예양강 : 나주의 쌍계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장흥부의 서쪽을 돌아 내양강이 된다. 사인암(장흥읍 송암리)에 이르러 서류하여 강진현의 남쪽에서 구십포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다. 이로써 탐진강의 옛 이름이 예양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³⁾

대동지지(大東地志, 哲宗 14년, 1863년) 장흥부편에 『內陽江一云遂寧川 源出羅州雙溪山東南流經迦智山轉而南流環府南而西流爲內陽江至舍人岩右過康津鵠川經康津南右過舟橋川南流爲九十浦卽耽津入海』로 되어 있다. 이를 풀이하면 “예양강 : 일명 수령천이라고도 하는데 발원지는 나주의 쌍계산이며 동남류하여 가지산을 돌아 남류하고 장흥부를 돌아 서류하며 예양강의 사인암을 우로 돌아 강진에 이른다. 작천과 만나 강진의 남쪽을 지나 주교천과 만나고 남류하여 구십포 즉 탐진에서 바다에 들어간다”가 된다.⁴⁾

광무(光武3年, 1899년) 편찬된 장흥읍지에는 『內陽江在郡東門外源出迦智山逶迤郡前西合 鵠川流入康津郡九十浦 鵠川在郡西五里源出靈巖月出山南流經康津北界至南六里與內陽江合入九十浦』로 되어 있어 탐진강의 발원지가 가지산으로 되어 있다.⁵⁾

이상의 옛 기록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탐진강은 원래 예양강이었으며 발원지는 나주의 쌍계산으로 가지산을 지나 강진만 구십포의 탐진에 이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구십포(탐진)는 현재의 어디일까? 필자가 인터넷에서 찾은 다음의 기록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탐진강은 장흥 유치면 세류리 기동마을 북서쪽 궁성산(484m) 범바우골 성터샘에서 발원하여 강진읍 목리에 이른다(57km). 장흥 구간에서는 ‘수령(遂寧)천’, ‘예양(內陽)강’이라 칭했다. 수령은 장흥의 옛 고을터의 이름이고, 예양은 장흥읍내에 있다. 상류에는 진발내(유치천)·옴내(옴천), 월출산 기슭에는 작

1) 이형식, 『한국의 산하』, 1990, 홍익재 - 탐진강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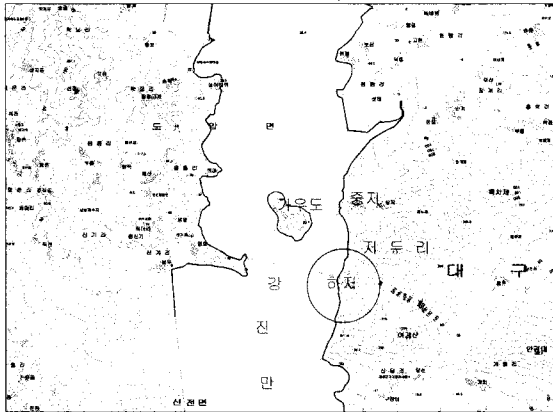
2), 3) 한국고전번역원 : <http://www.minchu.or.kr>

4), 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천(금강)이란 이름도 있다. 강진에서는 '탐진강'이라 칭한다. 1417년(태종 17년) 도강(道康)과 탐진(耽津)을 합해 강진이 되었기 때문이다. 탐진현은 757년(경덕왕 16년) 동음(冬音)현을 개칭하면서 처음 사용한 지명이다. 본디 동음은 두무, 두무, 두름 즉 원산(圓山)을 의미한다. 탐라도 동그런 뜻을 지니고, 한라산 역시 '큰 두름산(頭無岳)'으로 같은 뜻이다. 탐라와 탐진은 맥이 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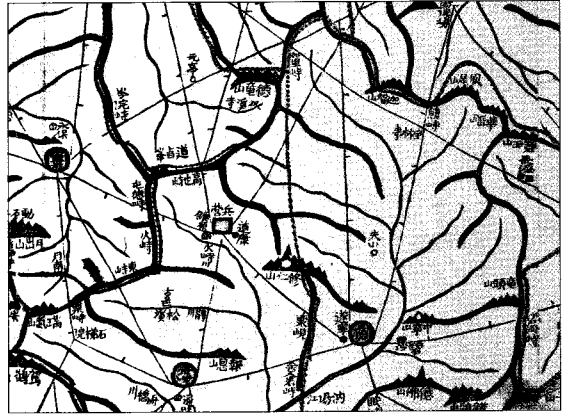
탐진현터는 강진 대구면 장어로 유명한 구십(구강)포 일대로 여겨진다. 이곳 지형을 보면 매우 깊숙한 만(灣)으로 요니형국이다. 앞 남해바다 즉 마량으로부터 강진읍 남포까지 50리나 들어와 자궁과 같다. 구십과 구강은 어귀(入口)를 뜻하며, 한자로 표기하면 '대구(大口)'가 된다. 대구면 저두리 하저마을이 옛 구십포요, 탐진이다. 이 동네 포구 동편 골짜기에 '양(야흔)골(九十谷)'이란 땅이름이 남아 있다. 이 포구의 바로 서편에 가우도가 있다. 이곳이 일제가 하구로 정한 곳보다 12km 하류 지점이다."이다. 즉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의 하저마을이 구십포요 그 아래가 탐진이라는 사실로 상당히 타당성 있는 내용이라 판단된다.



(그림 3) 구십포탐진

대동여지도(김정호, 1868년)에는 탐진강 발원지가 가지산의 서쪽 가리제(加里峙) 인근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대동지에서 가리키는 쌍계산은 가리치의 아래쪽에 쌍계사(雙溪寺)가 위치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인근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발원지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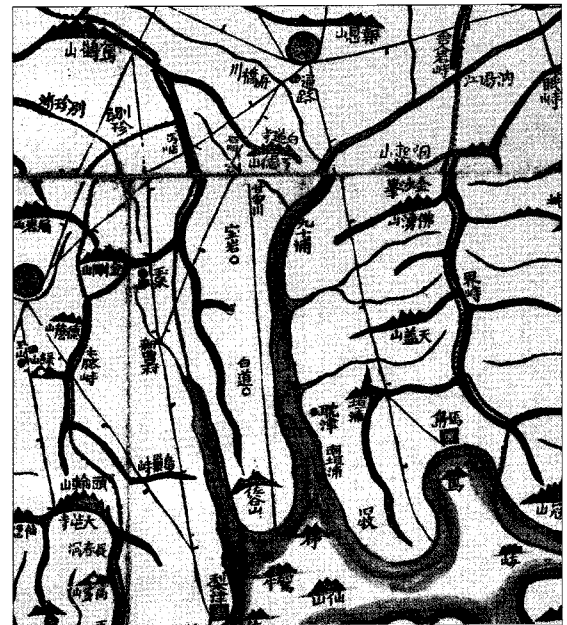
또한 하구 인근을 살펴보면 구십포 아래에 오늘날의 대구면 저두리 하저마을을 인근에 탐진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인근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대동여지도탐진강 발원지 인근

오늘날에는 대동여지도의 구십포 인근인 군동면 석교리 또는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인근을 탐진강의 하구로 보는 것으로 "하천일람"에 표기되어 있다. 옛 선인들이 정한 하구와는 약 8km 정도 위쪽을 하구라 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왕이면 조사들이 정한 지점이며 탐진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탐진이 위치하던 대저리를 진정한 하구를 정하면 좋지 아니한가. 생각해 본다.

여타 대동여지도와 유사한 고지도를 살펴본 바 대동소이 하므로 더 이상의 옛 지도는 살펴보지 않았다.



(그림 5) 대동여지도탐진강 하구 인근

이상으로 고문헌에 나타난 탐진강에 대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의 각종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것으로 백과사전을 살펴본바 먼저 야후 백과사전에 『전라남도 남부를 흐르는 강. 길이 51.5km, 유역 면적 862.5km². 남양강(納陽江)이라고도 한다. 장흥군(長興郡) 유치면(有治面)과 영암군(靈巖郡) 금정면의 경계에 있는 국사봉(國師峰, 613m)에서 발원하여, 유치면, 부산면(夫山面), 장흥읍 등을 지나면서 유치천, 부산천, 금강(錦江) 등과 합류한 뒤 강진군(康津郡) 군동면(君東面)·강진읍을 지나 강진만으로 흘러든다. 심한 곡류(曲流)와 급경사 지역이 많으며 많은 토사를 하류로 운반하기 때문에 유역에는 부산평야, 장흥평야, 강진평야 등 충적평야가 발달되었다. 하구에는 간척사업으로 하도(河道)가 정리되고 넓은 농경지가 조성되었다. 신라 문무왕 때 탐라국 고후(高厚) 형제가 내조할 때 상륙하였다고 하여 탐라와 강진의 한 글자씩을 따서 탐진이라 부르게 되었다.』⁶⁾ 라고되어 있어 예양강을 남양강이라고 오기하고 있고 발원지도 영암군 금정면 쌍호리의 국사봉으로 기록되어 이 역시 세류면의 궁성산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에 브리태니커 사전을 인용한 다음백과사전에는 『전라남도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을 흘러 남해로 흘러드는 강. 길이 56km이다.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궁성산(弓城山: 484m) 북동쪽 계곡에서 발원해 남동쪽으로 흐르며,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寶林寺) 앞을 지나면서 유로를 남쪽으로 바꾼다. 유치천(有治川)과 제비내를 합류하고, 장흥읍을 관류해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금강(錦江)을 합류한 다음 강진군 강진읍 남쪽에서 남해 도암만으로 흘러든다. 하천명은 탐라(耽羅)의 사자가 신라에 조공할 때 배가 이 강 하구의 구십포(九十浦)에 머물렀다고 해서 탐라국의 탐(耽)자와 강진의 진(津)자를 따서 탐진이라 한 데서 유래되었으며, 예양강(例陽江) 또는 수녕천(遂寧川)이라고도 불렀다. 강 유역에는 용반평야를 비롯해 부산평야, 장흥평야, 강진평야가 분포하며, 영산강, 섬진강과 더불어 전라남도의 3대 강으로 손꼽힌다. 탐진강의 하구인 구십포는 수심·수온 등이 장어가 살기에 알맞아 장어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은어도 서식하나 하천오

염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 유역 내에는 보림사를 비롯한 고성사, 금곡사, 무위사 등의 사찰과 궁성(弓城), 수인산성(修仁山城), 수암서원(秀巖書院), 연곡서원(淵谷書院), 사인정(舍人亭), 부춘정(富春亭) 등의 유물·유적이 있다. 이 강의 지류인 금강(또는 금강천)의 상류지역은 월출산국립공원에 속한다.』⁷⁾ 라고 되어 있어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탐진강의 발원지도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기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Internet portal site를 중심으로 검색한바 애플스, 네이버 등의 백과사전에는 탐진강에 대해 비교적 짧은 글로 소개하고 있으며 발원지는 이후의 그것과 같이 잘못 표기된 부분이 많다.

탐진강에는 최근 장흥댐이 건설되어 있다. 장흥댐은 전남 서·남부 해안지역 1개시 8개 군(목포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진도, 무안, 신안)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탐진강 중·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와 유치면 대리 사이에 건설되었으며 2006년에 준공되었다. 장흥댐의 사업효과로는 350천m³/일의 용수공급과 8백만m³의 홍수조절 그리고 4,500MWh의 연간 발전량을 통해 인근지역에 전력을 공급한다.

2. 현지 답사

탐진강은 이전부터 꼭 한번 답사를 하고 싶어 하던 하천이었다. 전라남도에서 섬진강, 영산강 다음으로 큰 하천이기도 하고 내가 취미삼아 기르는 물고기중 우리나라 고유종인 깍지기에 관한 많은 얘기를 들어온 터라 이제내저제나 하면서 답사할 날을 기다렸다. 하여 이번에는 탐진강을 답사하기로 하였다.

탐진강의 발원지는 인터넷 및 지도를 확인한바 전남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궁성터에 있는 성터샘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정밀수치지도(1/5,000)를 가지고 아리저리 발원지의 가능성을 확인한바 성터샘이라기보다는 궁성산 남쪽에 있는 기

6) 야후 백과사전 - <http://kr.dic.yahoo.com>

7) 다음 백과사전 - <http://enc.daum.net/dic100>

성산의 451고지 쪽이 발원지에 가까웠다. 물론 답사를 통한 확인과정이 필수지만 지도상으로 확인한바 거의 확실한 감이 들었다.



〈그림 6〉 장흥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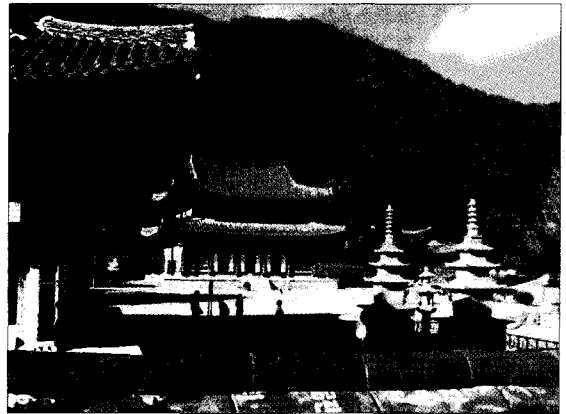
2008년 3월 7일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러 간단하게 몸을 씻고 장구를 챙겨 차를 몰고 어둠이 짙은 밤 고속도로를 타고 보성으로 내려갔다. 보성은 2007년 보성강 발원지를 답사할 때 아들 녀석과 함께 다녀간 적이 있어 낯설지는 않았으나 혼자 내려가는 고속도로는 장장 5시간을 달리기에 너무 고즈넉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광주를 지나 화순을 거쳐 보성읍에 다다르니 밤 2시경으로 보성읍내 거리는 안개가 자욱했다.

2007년에 묵었던 여관에 짐을 풀고 한잠을 자다 보니 아침이 되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답사하기 좋은 날씨로 용인의 집에서 맞이하는 아침 햇살과는 냄새가 달랐다. 전날 전화로 만나기로 약속한 순천대학교 정재성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재성 교수와는 10년전 감독과 엔지니어링 회사 사원 사이로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아직까지도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고 만나는 사이로 일전에 일 때문에 광양에 출장을 갔을 때 발원지 답사에 한번 같이 가자고 약속한 바 있어 같은 학교의 서병철 교수와 함께 탐진강 발원지 답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아침에 만나는 것이다.

만나기로 한 보성 공설운동장으로 가 일찍 도착해서 커피 한잔을 마시고 있는 정재성 교수 일행을 만났다. 답사는 내 차를 가지고 가기로 하였고 정교수 일행은 안내를 하기로 하

고 차에 올라 출발하였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보성을 출발 장흥군 장동면을 지나 장평면의 피재를 지나고 유치면의 장흥댐 수몰지 끝 부분인 용문리에 들어서자 드디어 탐진강의 중류가 보였다. 주위의 경치가 장관인 상류 부분은 하천에 드러나는 암석을 보아도 다른 지역의 하천보다는 다른 분위기였다. 하천 바닥은 퇴적암 절리가 무척 아름다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찰인 듯한 절이 하천의 만곡부를 따라 아름답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냥 지나치고 자료를 찾아보니 그냥 지나친 것이 후회가 되는 오래된 고찰이었다. 이름하여 보림사(寶林寺). 보림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인터넷 자료를 보면 중요함이 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가끔 발원지만 보이고 유역의 중요한 문화재, 좋은 경치 등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림 7〉 보림사전경

『보림사는 통일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가지산문의 종찰이다. 보조선사 체징(普照禪師體澄, 804~880)이 헌안왕 4년(860)에 이곳으로 옮겨온 이래, 보림사는 초조 도의선사와 2조 염거화상에 이어 보조선사를 제 3조로 삼는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이 되었고, 수행자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큰 절이 되었다. 보림사 가지산문의 선맥은 고려 말까지 이어져서,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도 가지산문에 속했다. 이곳에 처음 절을 지은 것은 보조선사보다 100년 전쯤 사람인 원표대덕(元表大德)이었다. 그때의 절 이름은 가지산사였는데, 보조선사가 입적한 후 헌강왕이 보림사라는 절 이름을 내려 주었다.

중국 남중선의 초조(初潮)인 육조대사 해능이 주석하던 소주(紹州) 조계산 보림사의 이름을 이 절에 내려 준 것은 이곳이 우리나라 선종의 본산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보림사라는 절은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보림사와 함께 삼보림이라 일컬어졌다고 한다. 화엄종 사찰로 출발한 가지산사는 보조선사가 와서 주석한 이래 선종 사찰 보림사로 바뀐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보림사 사지는 대부분 조선 후기인 숙종 영조 정조 때에 간행된 것들이지만 미국 하버드 대학 연경도서관에서 발견된 『신라국 무주 가지산 보림사 사적기』는 조선 초기인 세조 3년(1457년)에서 10년(1464년) 사이에 발간된 것으로 보림사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여기에는 보림사의 창건설화가 이렇게 적혀 있다. 신라의 명승 원표대덕이 인도에 있는 보림사를 거쳐 중국 보림사에서 참선하던 중에 한반도에 서기가 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신라로 돌아와 전국의 산세를 두루 살피며 절 지을 곳을 찾았다. 어느 날 유치면 가지산에서 참선하고 있는데 선아(仙娥, 선녀)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못에 용 아홉 마리가 판을 치고 있으므로 살기가 힘들다고 호소해 왔다. 그래서 원표대덕이 부적을 못에 던졌더니 다른 용은 다 나가는데 유독 백룡만이 끈질기게 버텼다. 원표대덕이 더욱 열심히 주문을 외었더니 마침내 백룡도 못에서 나와 남쪽으로 가다가 꼬리를 쳐서 산기슭을 잘라 놓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때 용 꼬리에 맞아 파인 자리가 용소(용문소)가 되었으며 원래의 못 자리를 메워 절을 지었다.

보림사는 통일신라 때 화순 쌍봉사, 곡성 태안사와 더불어 손꼽히는 큰 절이었다. 그러나 그 후 여러 차례 중창과 중수를 거치며 어느 절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웅장한 규모를 지녔던 보림사가 지금처럼 한산해진 것은 한국전쟁 이후부터이다.

천년 대가람이 재로 변한 후, 한 동안 보림사는 폐사될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 그 후 조금씩 복구되어 지금은 건물로는 일주문과 사천왕문, 1968년에 다시 지어진 대적광전 그리고 근래에 복원된 대웅전, 새로 지은 종루와 요사채 등이 절

터를 채우고 있으며 담장도 말끔히 돌렸다. 보림사를 살피는 길, 맨 처음 눈에 들어오는 일주문의 인상이 만만치 않다. 포작이 여러 겹 중첩되어 화려하고 장중한 일주문 정면에는 '가지산 보림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그 안쪽에 걸린 '선종 대가람'이라 적힌 현판은 보림사의 역사적 위상을 한마디로 대변해 준다.』⁸⁾

보림사를 지나고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로 들어서니 길은 비포장도로에다가 하천은 구불구불하고 길을 따라 들쭉날쭉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운전이 힘들기는 했지만 경치는 좋았다. 단지 아직 이른 봄이라 산과 들에 나무와 풀이 생기를 잃고 있어서 단조롭다는 것을 제외하고 단지 하천만 바라보면 오히려 잘 살필 수 있었다.

이윽고 발원지로 향하는 뜻말이 나타나고 약간 경사진 산길로 들어서니 차가 한 대 정도는 지나 들 수 있는 길이 나타나고 그 길을 따라 쪽 올라가니 저 멀리서 대나무숲 사이로 성터샘이 보였다. 성터샘 약 50m 전에는 인도의 끝이자 주차장 정도 되는 공터가 조성되어 있어 차가 여기까지 힘들이지 않고 올라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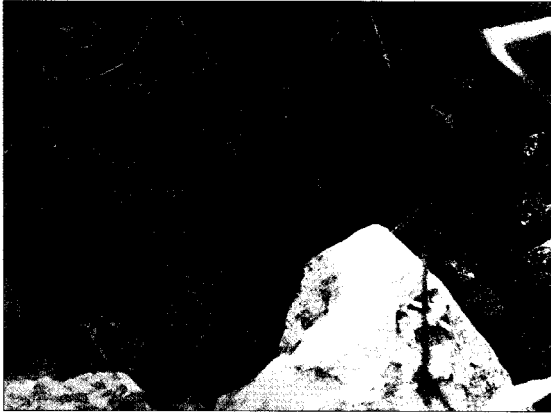
성터샘의 첫 인상은 황량하다고 할까? 무언가 빠져 있는 듯 샘이라고 하지만 고여 있는 물도 없고 샘에서 흘러들어 갔음직한 아래쪽의 작은 연못은 개구리들이 알을 많이 까놓고 있어 일반적인 들판의 농업용 웅덩이 정도로 보였다. 그것도 가뭄에 말라버린...

성터샘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장흥댐을 건설하면서 탐진강의 발원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비교적 잘 정리해 놓았다. 솥대, 표지석, 표지판, 샘을 둘러싸고 우물같이 쌓은 샘터 그리고 입구까지 잘 정리된 접근로, 길 안내판 등 무척 정성을 들인 흔적이 곳곳에서 보였다.

하지만 정교수 일행과 나는 한번에 '이건 아니지' 하면서 서로를 돌아봤다. 왜냐하면 발원샘이라고 표시된 샘의 안쪽에는 물이 말라서 낙엽만 뒤굴고 있었고 오히려 샘터 위쪽의 산 쪽으로는 평시에는 건천이지만 비가 오면 물줄기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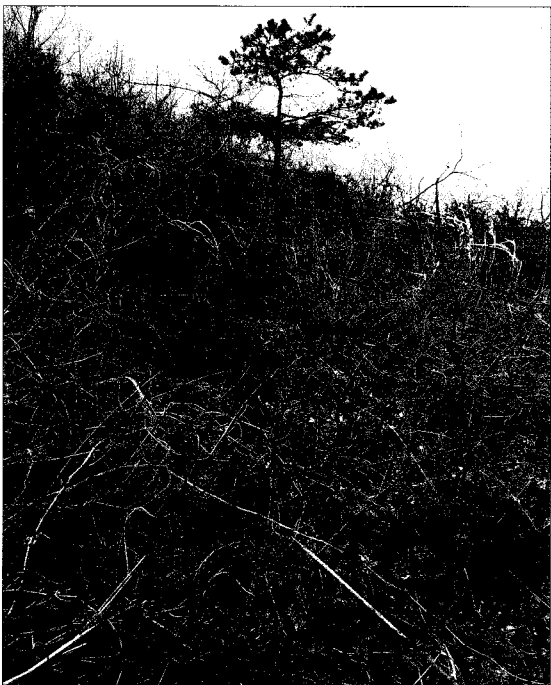
8) 원광대학교 미한 역사 교실
<http://mahan.wonkwang.ac.kr/culture/springdabsa8.html>

되어 흐르는 작은 실개천이 분명히 보였고 그 실개천을 따라 가면 분명히 산정상 8부 이상까지는 물줄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림 8) 성터에서 발견된 기와 파편

한참을 성터샘 주변에서 둘러보고 산쪽으로 답사를 하기로 했다. 산줄기를 향해 올라가면서 주위를 살펴보니 기와조각이 많이 발견되었다. 옛날에 궁성이 있던 터라 했던가? 성안에 있던 어느 집의 잔재이려니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속에는 커다란 기와집이 그려졌다. 산쪽으로 난 가시덤불(짚레꽃)을 헤치면서 약간 올라가니 작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다. 물이



(그림 9) 탐진강 발원지

줄줄줄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물 때도 물이 마르지 않을 것 같이 보였다. 다시 생각하면 장마철에는 물이 많이 흐른다는 것으로 하천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계속해서 짚레꽃 덩불을 헤치면서 올라가니 드디어 발원지가 나왔다. 주위는 짚레꽃 덩불에 둘러싸여 있고 발원지 바로 위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발원지임을 표시하는 듯서 있었다. 마치 한강의 고목나무샘처럼 크기는 기껏해야 10년 정도 되는 듯하지만 주위에 소나무가 별로 없어서 확실히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식이었다.

이곳이 발원지가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GPS로 확인도 했다. 발원지를 찾고 보니 탐진강의 발원지는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기성산 451.5고지 북서계곡으로 확인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성터샘보다는 약 100m 정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져온 GPS를 확인하니 북위 34° 52' 33", 동경 126° 47' 05"(GRS80좌표계)로 측정되었다.

발원지를 확인하고 보니 옆의 계곡 즉 기성산쪽 계곡이 더욱 길어 보여 확인하기로 하고 먼저 451.5고지 정상에 올라갔다. 고지의 정상은 성을 쌓았던 흔적인 듯한 돌무더기가 마루금을 따라 일렬로 다량 흩어져 있었고 정상부에서 서쪽을 바라보니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어 골프 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마루금을 따라 기성산으로 올라갔다. 기성산 정상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듯한 헬기장이 있었고, 역새, 참나무, 싸리 나무 등이 무상했고 측량할 때 사용하는 BM인 듯한 시멘트 구조물이 일부 깨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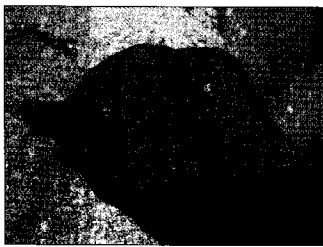
기성산 정상에서 계곡으로 내려가면서 발원지가 될 만한 지점을 찾아보았으나 계곡이 넓은 "U"자형으로 이루어져 한참을 내려가서 겨우 발원이 될 만한 지점을 찾았는데 451.5고지의 발원지보다 더 짧은 유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더 이상의 답사를 포기하고 짚레꽃 가시덤불을 헤치며 성터샘으로 돌아왔다. 아 얼마나 많이 가시에 찔렸는지 집에 와서 다리를 살펴보니 온데가 찔리고 굵긴 흔적이 어서 내 다리가 아니 듯 싶었다.

성터샘을 뒤로 하고 다시 하류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답사



〈그림 10〉 세류리 인근 하천

를 하기로 하였다. 상류에서 오던 길을 되돌아 하류로 얼마 쯤 내려가 세류리 옆의 하천이 지리학적으로 층리가 많이 발달한 지형을 하천이 뚫고 지나가고 있는 너무나 멋진 광경이 보였다. 지질구조는 잘 모르지만 운치와 멋은 지금까지 돌아본 어느 하천보다 멋있었다. 돌아와서 본 지역의 지질구조를 조사한바 자색이암의 층리로 판단되었다. 다시 하류로 내려가 보립사를 지나고 장흥댐의 수몰지를 지나 장흥댐에 이르렀다.



〈그림 11〉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하천 암석

장흥댐의 직하류에는 수변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었으며 하천에는 수많은 갈대가 숲을 이루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또한 댐 기념관에 들어

서서 수몰지의 옛 모습과 탐진강에 사는 물고기 등을 보고 다시 하류로 발길을 돌렸다.

장흥 시내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이제부터는 중하류 방향으로 향하였다. 장흥을 빠져나온 탐진강은 물 색깔이 장흥을 들어가지 전과 매우 달랐는데 아마도 시내 구간을 통과 하면서 오염이 많이 된 상태가 그럴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한참을 하천 독길을 들어갔다 나오곤 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천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강진에 다다를 때까지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다. 다만 강진 읍내를 나오자마자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하는지 강바닥에서 포클레인이 바닥을 헤

치며 공사하는 모습에서 예 모습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보이는데는 듯 했다.

드디어 강진에 다다랐다. 사전에 탐진강의 하구가 어디인지 조사하지 못한 관계로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직원에게 물어보아 하구위치를 알았다. 그런데 “하천일람”상의 탐진강 하구는 장흥군 군동면이라고 되어 있어 다소 의아했다. 하천 주변을 살펴보면 군동면이 하구일 리가 없어 한참을 고민 끝에 찾아본 결과 강진과 장흥의 경계선 정도가 범접하천 끝이라고 판단되었다. 탐진강의 하구 즉 강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은 수많은 갈대가 저녁바람에 흔들리면서 갯골 사이로는 인근 들판에서 흘러들어가는 작은 실개천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림 12〉 탐진강 하구(강진면)의 갈대밭

이제 거의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배경으로 멋진 작품 하나 남기려고 수많은 사진은 찍었지만 돌아와서 확인한바 쓸만한 사진은 없었다. 역시 난 사진작가가 못 되나 보다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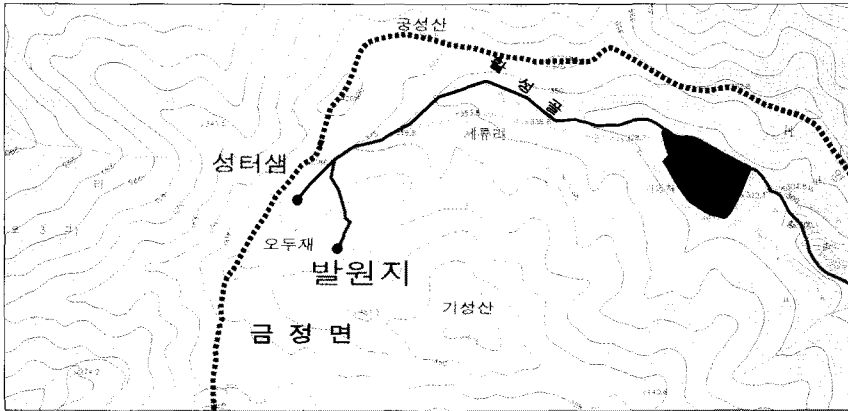
했다. 한잠을 머물다가 보성으로 돌아와 정재성 교수 일행과
는 헤어져서 곧바로 서울로 향하여 밤 11시쯤 집으로 돌아왔
다. 피곤하기도 하지만 참 의미 있는 하루였다.

법정하천 종점을 우리 조상들이 정한 탐진(현재의 대구면
저두리 하저마을)으로 하지 않고 더 상류인 구십포로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본인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탐진강의 종점
을 하저마을로 옮겨 탐진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강으로 만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탐진강 가인 장흥에서 출생하여 탐진강 가에
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시인이 된 이후 연작시 "탐진강"이라는
시를 지어 탐진강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위선환 시인의 "탐진
강"중 하나를 소개한다. 

위 선환 홈페이지 - <http://yago30.hihome.com>



(그림 13) 탐진강 발원지 위치도

탐진강 2

위선환 ^위

강이 오래 운다. 잊었겠는가. 풀밭에 한 사람이 누던 것을, 언제나 아프던 것을.

강 허리에, 은비를 몇 뭉는다. 물 속까지 흐른 버들가지에 초목색 이파리들이 한 잎씩 피더니
버들잎 아래로 피라미드가 지나가며 물길을 내고 이내 번뜩이는 꼬리들을 맞부딪치면서 자갈들
흐르는 여울바닥을 겨울편 오른다. 자갈바닥에서 피라미드가 달아지고 있다. 파란 턱뼈와 핏발
뻐 아가미가 비치고 지느러미는 이미 물빛이 되었다. 오래지 아니하여 비늘들이 다 갈라지고 생
살이 해져서 자잘한 가시들이 드러나리라. 벌써 여울목에 가시뻬가 걸리더니 잔가시에 찢린 물
살들이 저민 듯 붉어지면서 물줄기가 흥건해졌다. 사람이 또 아프겠다.

어두워지기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린다. 어제 던진 조약돌들이 저무는 물바닥 위를 잔달음질로
건너가고 있다. 기억은 수도 없이 동그랗게 물무늬를 그리고, 강은 목 메이고, 운다. 등을 굽히고
일어서면 강이 엮히는 것을, 등이 흠뻑 젖어서 무너지는 것을..